

#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 ：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손 상 희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벤처산업학전공 부교수)

정 영 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교수)

### I. 문제제기

- 대부분의 중년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대학에 그것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에도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교육비의 무리한 지출이 가져오는 가계압력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비 지출은 여유만 있다면 늘리고 싶어함.
-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원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몫보다 사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과다한 교육비는 소비항목들 간의 상충효과 및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것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왜냐하면 한 가계가 교육에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지출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상황이 위축된 경우에도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 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지난 70년대 후반으로 94년까지 불변가격으로 10.2배, 경상가격으로는 4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도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지출은 전혀 감소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
- 경제한파나 변동으로 인한 압력 중 중년기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교육비이며, 이러한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가계마다 다양한 방법을 간구

하고 있음. 급박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가계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현상들의 기저에 흐르는 경제적 유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음.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사교육을 법으로 막기보다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인프라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음. 이미 온라인 상에 가상대학과 같은 공교육 시장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과외 시장이 형성되어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시장규모 자체도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갤럽이 6대 도시 고교생과 학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유학 수용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학위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이버 대학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지털 세상이 전통적 교육 이외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대두되면서 가계의 자녀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른 것은 다 줄일 수 있어도 교육비만큼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가계의 교육비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문제를 진단해보기 위하여

-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보고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교육비 지출을 어떤 예산방식에 의해 조절하는지를 알아본다.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다른 소비항목들과 더불어 가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 둘째, 디지털 시대의 교육비문제 해결방안으로

-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사교육비와, 특히 교육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육비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기 위해, 인터넷 재무설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문제에 대한 자료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 관련문제의 유형과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가계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II. 교육비 지출실태와 재무적 문제<sup>1)</sup>

### 1. 교육비 지출실태와 가계복지

-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 및 평균지출액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계의 과외이용률은 58.0%, 중산층은 71.2% 그리고 고소득층은 80.4%로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음. 평균지출액도 저소득층은 7만 8천원 정도인데 비해 중산층은 16만 5천원 그리고 고소득층은 42만 4천원을 할애하고 있어 저소득보다 5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 사교육 형태 중에서 최다이용 유형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일반 단과학원인 반면 고소득층은 소위 말하는 고액과외 형태를 띤 교사 1명에 학생 1명의 개인지도를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소득계층별 공교육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사교육비와는 달리 공교육비인 대학등록금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없으므로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함. 일반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계의 년간 공교육비는 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 가계의 교육비 지출실태와 재무 문제에 대한 분석자료는 경제적 변동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경제위기 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자료는 1995년 9월~11월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있는 512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는 1999년 2월~3월에 138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차례에 걸쳐 수집된 자료는 동일한 측정도구가 적용되었고 표집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단 1999년에 수집된 자료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변인들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1>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 및 규모와 공교육비

소득 계층	사교육			공교육비1) (대학등록금)
	이용률 (%)	월사교육비 (SD)	최다 과외유형 (이용률)	
저소득	58.0	78,000 (86,000)	일반 단과학원 (64.3)	5,200,000
중산층	71.2	165,000 (222,000)	일반 단과학원 (34.1)	5,260,000
고소득	80.4	424,000 (607,000)	교사1명 vs. 학생1명 (42.2)	5,980,000
F	16.571***			0.312

\*p<0.05    \*\*p<0.01    \*\*\*p<0.001

1) 대학등록금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수준에 비한 자녀교육비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결과,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부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산층이며 고소득 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2>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부담

소 득 계 층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M (SD)	소득수준에 비한 자녀교육비 부담 M (SD)
저소득층	4.16 (1.16)	4.04 (1.18)
중 산 층	3.34 (1.20)	3.47 (0.95)
고소득층	2.63 (1.11)	3.01 (1.01)
F	23.17***	22.03***

\*p<0.05    \*\*p<0.01    \*\*\*p<0.001

-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많은 가계에서 실질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타 항목의 소비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사교육의 필요성은 경제위기이전에 비해 이후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표준편차 값은 경제위기이전보다 이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간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인식차이가 경제위기이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효과가 경제위기이전과 같이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 경제위기 전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변 인	경제위기 전후	평 균	표준편차	t
월평균 사교육비	위기 이전	238,400원	328,300원	0.77
	위기 이후	262,400원	231,400원	
사교육의 필요성	위기 이전	3.40	1.00	3.84***
	위기 이후	3.67	0.87	
사교육의 효과	위기 이전	3.62	0.78	0.23
	위기 이후	3.60	0.78	

\*p<0.05    \*\*p<0.01    \*\*\*p<0.001

- 소비항목들 중 가계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식료품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등으로 나타났음. 가계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 중 외식비만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항목의 지출증가가 가계복지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beta$  값을 중심으로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가계복지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항목들 중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이 외식비, 식료품비, 공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가 가계복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가계의 교육비 지출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는 소비자의 수요 뿐 아니라 그 소비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 학벌주의 가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신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회구조와 인식체계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그리고 그러한 무리한 지출이 가계의 경제규모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한 부담이 가계복지를 위협하고 있음.

<표 4> 소비지출과 가계복지와의 관계

소비항목	B	$\beta$
식료품	-0.0077*	-0.1586
외식	0.0331***	0.1884
피복	-0.0071	-0.0809
주거	0.0009	0.0130
교통통신	-0.0055	-0.0157
공교육	-0.0130**	-0.1003
사교육	-0.0186***	-0.2294
교양오락	0.0058	0.0947
보건위생	-0.0109	-0.0436
보건의료	-0.0113*	-0.0944
상수	3.0489***	
R2	0.325	
F	14.057***	

\*p<0.10    \*\*p<0.01    \*\*\*p<0.001

## 2. 교육비 지출과 재무적 문제

-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할 경우 교육비 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설계 차원에서 볼 때 예산방식에 따라 가계의 재무적 문제의 성격이나 재무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임.
- 가계가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는 변동예산방식과 고정예산방식이 있는데, 변동예산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감소분을 충당하여 기존의 교육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고정예산방식은 감소된 소득에 맞게 교육비 지출을 조정하

는 것임. 여기서 지출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정 가능한 소비항목의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교육비 지출로 대체하거나, 조정 가능한 항목을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보류하여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방식 중 가계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조정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 중 소득이 감소한 만큼 일부 항목의 지출규모를 줄여 주어진 소득범위 내에서 가계를 운영하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는 32.1%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기존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충당하여 생활하는 변동예산방식을 적용한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 중 저축한 돈으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업이나 가윗일을 한 부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응답도 17.6%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상황변동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대처방안별로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감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서 조정하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가계나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부업이나 가윗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변동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간에 사교육비 지출수준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줌.
- 그 이유는 고정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는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감소분을 충당하고 교육비 지출은 소득감소 이전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에 저축 및 자산 등과 같은 여유자원이 있거나 부업이나 가윗일 등으로 부수입을 벌어 소득감소분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변동예산방식에 의해 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뿐 아니라 다른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수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의 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가계간에 다른 소비항목들에 대한 지출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육비 지출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이게 됨.

<표 5> 소득 감소시 대처방안별 사교육비 지출실태

대처방안	%	사교육비 평균 (천원)	F
고정예산방식 :			
소득이 감소한 만큼 지출을 줄였다.	32.1	293,300원 (311,100)	
변동예산방식 :			
부업이나 가업일을 했다.	17.6	216,500원 (138,100)	0.521
자산의 일부를 처분했다.	9.9	318,500원 (106,600)	
은행이나 신용카드로 돈을 빌렸다.	7.6	252,700원 (210,900)	
저축한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32.8	268,800원 (243,700)	

- 소득이 감소했을 때 소비항목들 중 주로 어떤 항목의 지출을 줄이면서 조정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지출감소 폭이 가장 큰 항목은 피복비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식료품과 여가활동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등은 지출감소 폭이 적은 항목인 것으로 분류되었음.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비항목의 속성상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가구의 55.9%가 교육비라고 응답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다른 항목보다도 교육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가계가 교육이라는 재화에 대해 가지는 수요나 필요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소득 감소시 지출감소 폭이 큰 항목과 줄이기 어려운 항목

소비항목	지출감소 폭이 가장 큰 항목 (%)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 (%)
교육비	12.4	55.9
식료품비	24.0	21.3
피복비	28.7	4.7
주거비	1.6	3.9
교통통신비	5.4	9.4
여가활동비	22.5	0.8
보건의료비	-	3.1
경조사비	5.4	0.8

- 경제적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소비항목은 줄일지라도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비가 가계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가계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초기부터 교육비 마련 계획과 재무관리 방안을 세워야 함.

### III. 디지털 시대의 교육비 관리 방안

#### 1.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활용

##### 1)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2001년 1월말 현재 220여개, 3월말 현재 500여개로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임 (동아일보, 2001. 9. 7, 47면; 전인식, 2001).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약 35조원인데, 이중 온라인 교육시장규모는 500억원이며, 2002년에는 5조원으로 10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동아일보, 2001. 3. 19, 25면).
- <표 7>은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 2000~2001년 사이에 일간신문이나 경제신문, 시사잡지 등에 그 이름이 소개된 적이 있는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1) 온라인 교육전문업체

- 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업체로서, 교육포털사이트와 과목별 전문사이트로 구분됨. 교육포털사이트는 학교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한 강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과목별 전문사이트는 수학이나 영어, 논술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특징적 사이트

- 에듀넷: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 교육포털사이트임.
- 한미르: 한국통신에서 온라인 과외사이트들을 모아둠.

- 인터넷교육방송, 이패스, 아이엘리트: 현직교사들이 운영.
- 정사모(정석을 사랑하는 모임): 서울대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수학지도 서비스를 제공함.
- 샘넷: 일대일 실시간 화상강의 및 관리.

### ○ 경제적 효과

-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과 몇몇 무료사이트를 제외하고 유료사이트가 대부분이며, 초기에 무료였어도 차츰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임. 유료인 경우 이용료는 사이트마다, 강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프라인 상의 과외나 학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어학강좌의 경우 이용료가 특히 높은 편임.

### ○ 학습형태

- 학습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동영상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인터넷교육방송, 배움닷컴, 1318클래스, 캡스터디, 마이티스터디, 샘넷, 클릭스터디 등은 동영상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과외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음.

#### (2) 온라인 학원

### ○ 대성학원, 종로학원: 수십년간 쌓아온 자체 컨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 ○ 중 · 고등학생 대상 입시수능정보, 면접예상문제, 기출논술문제, 수능모의고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잘 알려진 자체 강사진이 진행하는 일대일 과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프라인 상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3) 온라인 학습지

### ○ 유아 및 초등학생 교육사업을 담당해왔던 삼성출판사, 두산동아, 금성출판사와 같은 아동전문출판사들과 대교 눈높이나 웅진 씽크빅과 같은 기존의 학습지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 온라인 학습지를 제공, 교과공부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와이즈캠프: 하루에 2과목씩, 한달에 60시간 공부계획을 정해놓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한달에 한번씩 ‘온라인 학교생활’이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보냄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학습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씽크빅아이: 백과사전과 한국의 자연탐험, 자연생태, 전통문화에 관한 방대한 사진 자료들을 제공.

## 2) 온라인 교육의 장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장점

- 저렴한 교육비: 배움닷컴이 회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월 1~3만원을 적정수강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hackersnews, 2001. 6. 14), 대부분의 교육서비스의 이용료는 이를 만족시켜줌.
- 잘 알려진 강사의 강의를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접할 수 있다는 점, 풍부한 정보의 획득, 시간적 자유로움, 제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 ○ 문제점

-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미비한 곳에서는 이용이 어려움, 실시간 음성강의나 전자 칠판의 열악한 품질, 컨텐츠가 부실한 사이트가 많은 점, 제한된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동기 저하의 문제, 학습결과의 확인 및 평가의 문제, 교육 효율성의 문제, 학부 모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불신 등 (박인우, 2001; 전인식, 2001; 중앙일보, 2000. 6. 1, 25면).

### ○ 인터넷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표 8)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보면 1999년 353건에서 2000년 871건, 2001년 6월 현재 852건으로 크게 증가.
- 피해유형: 방문교육 실시, 해약 가능 등과 같은 계약 당시의 약속 불이행이 51.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 16.9% 등의 순이었음 (sobinet.cpb.or.kr, 2001, 8. 29).

<표 7>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종류별 현황

유형	업체명	운영자	대상	서비스 내용	동영상 강의	이용료
온라인 교육 전문 업체 <포털>	에듀넷 (www.edunet4u.net)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유·초·중 고·일반	교과 및 교과관련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공 - 학년, 학기별 교과목 예습, 복습/ 고교생 대상 수능유형분석, 논술 등 사이버강좌	O	무료
	한미르 (edu.hanmir.com)	한국통신	초·중·고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미르의 교육 전문 포털/ 기존의 여러 학습사이트들과 연결하여 특정 분야의 사이버강좌 제공, 추천 컨텐츠 서비스	O	초·중 (강좌당 4,000~10,000원) 컴퓨터·어학 (강좌당 9,000~162,000원)
	인터넷교육방송 (www.iolta.co.kr)	(주)인터넷 교육방송	중·고	200여명의 현직교사 교과서 사이버 강의/ 수능대비 학습,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 매월 1회 무료실시 - 개인별 전국석차	O	강좌마다 다름 (관리교사나 영업사원 상담 후 이용)
	에듀박스 (www.edubox.com)	코네즈	초·중·고 일반	초·조이넷스쿨- 일일학습, 숙제도우미/ 중·고 1318 코너 무료 종합교육정보서비스	X	무료
	디그 (www.dig.co.kr)	(주)디그	초·중·고 일반	교과서별, 주제별, 학부모페이지별 학습 자료 검색	X	교과서 찾기 (월 2,000원) 질문, 상담 (월 5,000원)
	배움닷컴 (www.baeoom.com)	(주)배움닷컴	유·초·중 고·일반	삼성출판사, 종로학원, 파고다외국어학원 등과 제휴, 교육 컨텐츠 제공 중고생을 위한 38개 과목 4,400개 무료강좌	O	컴퓨터 (강좌당 20,000~40,000원) 유아 (3개월기준 종류별 10,000~25,700원) 초등·고등 (강좌당 5,000원~ 15,000원)
	1318 클래스 (www.1318class.com)	참누리인터넷 방송국	중·고	학습자료 DB, 시험준비(중간, 기말, 모의고사란), 과목별 출판사별 교재선택/ 사이버강좌 - 요점정리 다운로드 가능	O	중등 (19,000원~165,000원) 고등 (22,000원~198,000원)
	이패스 (www.epass21.co.kr)	학사모	고등학생 (초·중 준비중)	학교를 사랑하는 교사모임이 운영. 문제은행, 개인성적관리, 전국테스트평가, 수능모의고사, 학습 및 진학상담	X	3개월 30,000원 12개월 60,000원
	캡스터디 (www.capstudy.com)	중학교현직선 생님들이 운영	중학생	중학생 학습시스템, 사이버 강좌	O	무료
	마이티스터디 (www.mightystudy.net)	(주) 마이티넷	고등학생	수능대비 진도표에 따라 강의진행, 매월 모의고사·개인성적관리, 논술테스트	O	월 20,000원 연 220,000원
	씨스쿨 (www.cschool.net)	(주) 다솜씨스쿨	고등학생	대학입시에 관한 다양한 자료/ 교과관련 사이버강좌는 없음	O, X	외국어, 정보화, 디자인강좌 (월 강좌당 8,000원~22,000원)
	샘넷 (www.semnet.co.kr)	SEMNET & iMBC	초·중·고	전학년 멀티미디어 교과학습자료/ 컴퓨터 학습, 글짓기, 논술, 한자, 기초 영어/ 샘넷 공부방 - 일대일 실시간 화상강의 및 관리	O	회원: 학습기간 및 관리내용에 따라 다름 고교 강좌별 월 17,000~35,000원
	에듀토피아 (www.edutopia.com)	(주)에듀토피아	고등학생	내신성적산출, 수능전략, 수능자료제공, 심리검사, 논술특강, 일대일 맞춤정보상담, 입시정보 제공/ 자매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앙교육문화사 (A')	X	일대일 맞춤정보상담 월 5,000원 대입올패스 서비스 99,000원
	아이엘리트 (www.i-elit.co.kr)	(주)데이콤	초등학생	초등학생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숙제도우미, 현장학습, 교사 수업용 자료/140명 현직교사가 자료제공	X	정보이용료 월 10,000원
	클릭스터디 (www.clickstudy.co.kr)	유니텔/넥스트 에듀정보통신	초·중·고 일반	정일학원, 이익훈이학원, 시사일본이학원 등의 강의 제공	O	초·중 월 강좌당 8,000~10,000원 어학 강좌당 15,000~42,000원
	대한생명 인터넷교육사이트(www.actzone.co.kr)	대한생명	초·중·고	교과서 중심 학습자료 제공, 수능 사이버 모의테스트	O	고객인 경우 서비스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

<표 7>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종류별 현황 (계속)

유형	업체명	운영자	대상	서비스 내용	동영상 강의	이용료
온라인 교육전문 업체 <수학>	매쓰월드 (www.mathworld.co.kr)	매쓰월드	중·고	중고교 수학강의 및 학습자료 제공	○	월 10,000원
	매쓰테크 (www.mathtech.co.kr)	매쓰테크	중·고	중고교 수학강의 및 학습자료 제공	○	월 15,000원
	정사모 (www.jungsamo.com)	정사모	중·고	수학 학습 사이트 질문과 답변 형식, 영어도 포함.	×	무료
온라인 교육전문 업체 <영어>	이익훈어학원 (www.ike.co.kr)	이익훈어학원	중·고 일반	AFKN 뉴스 받아쓰기 내용듣기 및 모의고사/ 텁스강좌 학습내용 제공 {lng글리쉬 클리닉 온라인 강의	○	무료
	잉글리쉬114 (www.english114.com)	잉글리쉬114	초·중·고 일반	단어 온라인 테스트, 토익 온라인 테스트, 어휘, 문법, 독해 관련사이트 정보/ 네이버, 엠파스, 다음 쿨사이트로 추천	×	무료
	윙글리시 (www.winglish.com)	Winglish.co m	중·고 일반	토익, 뉴스영어, 생활영어, 전화영어, 수험영어, 비즈니스영어 강좌	○	강좌당 월 12,000원~250,000원
	차일드유 (www.childu.co.kr)	(주)프로랭스	초·중·고 일반	미국 ChildU사가 개발한 미국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에 따른 학습 컨텐츠 제공. 애니메이션 강좌, 학습활동, 시험점수 등 관리	○	연 297,000원
	펀글리쉬 (www.funglish.com)	Funglish	중·고 일반	이메일 작성법, 생활영어 자료, 토익, 토플, 비즈니스 강좌	○	토익코스 (총9과목) 148,000원 왕초보, 비즈니스코스 87,000~ 175,000원
온라인교 육전문업 체<논술>	구술닷컴 (www.goosul.com)	(주)구술닷컴 (주)에듀파이	수험생	기출문제, 추천사이트 정보, 구술면접 강의	○	구술멤버십회원 전강좌수강 350,000원 강좌당 10,000~40,000원
	수시119 (www.susi119.com)	(주)누구나닷 컴	수험생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학계획서 대필, 수시모집정보	×	무료 (2002. 3월부터 연회비 30,000원)
온라인 학원	디지털 대성 (www.ds.co.kr)	대성학원	고등학생	입시요강, 특별전형, 경시대회, 영역별 학습정보, 수능기출문제 정보, 모의고사, 진학지도가이드 서비스	×	모의고사, 진학지도가이드, 학습지 - 유료 (가입비 7,000~
	종로엠닷컴 (www.jongrom.com)	종로학원	중·고	교육자료, 내신기출문제, 실시간 생방송강의(일대일 맞춤과외)	○	과목당 월 25,000원 기출문제 이용 월 10,000원, 연 100,000원
온라인 학습지	와이즈캠프 (www.wisecamp.com)	삼성출판사	초등학생	인터넷 학습지, 하루 2과목씩 한달 60시간 공부서비스 가정통신문, 온라인 학교생활 체크	×	월 24,000원 (2주일 무료학습기간)
	아이야닷컴 (www.iyah.com)	두산동아	초등학생	인터넷 학습지, 각종 경시대회문제, 무료 영어학습자료 제공 (1주일 무료학습기간)	×	수리, 영어 각 월 25,000원 두 과목 월 33,000원
	푸르넷 (www.purunet.com)	금성출판사	초등학생	전과목 학습서비스/ 종이첩기, 컴퓨터, 백일장, 친札지도	×	월 30,000원, 연 240,000원
	싱크빅아이 (www.thinkbig.co.kr)	웅진닷컴	초등학생	백과사전, 숙제방, 국·영·수 학습/ 한국의 자연탐험, 생태, 전통문화 사진	×	월 22,000원
	에듀피아 (www.edupia.com)	대교	유·초·중 고·일반	교육정보 및 자료 제공 고교생 대상 유료 사이비강좌(중등 강좌 무료)	○	고등 강좌당 15,000원~24,600원 모든 강좌 자유이용권 월 63,000원

<표 8> 인터넷 교육관련 소비자피해유형

피해유형	구체적인 내용 사례	건수 (%)
약속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 방문교육 미실시</li> <li>• 해약거부</li> <li>• 동영상 학습내용 미제공</li> <li>• 시연당시의 동영상 파일과 실제 파일의 품질 차이</li> </ul>	49 (51.7)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해약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가격의 과다책정</li> <li>• 사이트 접속시 필요한 ID, PASSWORD 개설비 보상 요구 등</li> </ul>	17 (19.1)
청약철회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유 로 거절</li> </ul>	15 (16.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당시 제공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li> <li>• 프로그램 설치 지연, 미설치</li> <li>• 미성년자 계약</li> </ul>	11 (12.3)
계		89 (100)

자료: sobinet.cpb.or.kr, 2001, 8. 29.

### ○ 개선방안

- 사업자측: 적절한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따른 속도 및 품질 개선, 충실한 컨텐츠와 효율적 강의방법의 개발, 학습평가방식의 개선, 계약의 정확한 이행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정책마련 및 개선: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확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부실업체의 적발이나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정시 인터넷 교육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 소비자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임.
- 소비자교육: 좋은 교육사이트의 선택요령,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법 등

## 2. 인터넷을 이용한 자녀교육비 설계

### 1) 자녀교육비 설계의 필요성

## ○ 자녀교육비, 특히 대학교육비의 부담

- 가계의 현재 소득 중에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어서, 많은 가계는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과 대출을 함께 이용하게 됨.
- 주택은행의 2000년 ‘가계금융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교육비 마련이 저축목적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www.ilyosisa.co.kr, 2001. 3. 19), 2001년 정부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12만명분인 4,550여억원이 배정되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등에서 학자금 대출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신문, 2001. 9. 7, 23면; 한국경제, 2001, 7. 24, 2면) 현상들은 이에 대한 가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임.
- Lee (1998): 미국가계의 경우에도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소득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나 대출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밝힘.

## ○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 Hanna와 Chen (1996)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장기적 재무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 단기적 재무목표를 조정해야 하며, 조세정책, 투자대안의 수익률, 위험정도, 준비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재무자산의 구성 혹은 포트폴리오의 선택, 즉 장기적 재무설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 생애주기의 각 단계마다 가계가 해결해야 하는 결혼, 주택마련, 은퇴 등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따라 지출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 중 중요한 사건인 자녀교육비 마련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2) 인터넷 재무설계서비스의 현황

## ○ 재무설계서비스의 발전배경

- 9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계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장단기 재무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재테크 상담이나 조언 제공, 그러나 대부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금융기관에 국한하는 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음.
- 최근 인터넷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총체적인 금융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사이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전보다 다각적이고 대중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어, 가계의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수요를 좀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음.

## ○ 자녀교육비 설계서비스의 내용 분석 (표 9)

- 분석대상: 인터넷 소비자재무설계 서비스산업을 분석한 양세정·성영애·손상희·윤정혜·이희숙·최현자(2001)에서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터넷 사이트<sup>2)</sup>.
- 자녀교육비와 관련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크게 금융전문사이트와 은행임. 이들은 자녀교육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보제공, 계산기, 생애재무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업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타남.
- 금융전문사이트들이 대체로 자녀교육자금 중심의 생애재무설계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은행들은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고, 금융전문사이트들이 인터넷에서의 회원가입을 통해 혹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은행들은 인터넷 회원 혹은 인터넷 뱅킹 가입자, 즉 자사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한정하고 있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의 차이점이 있음.

### (1) 정보제공

#### ○ 자녀교육목적의 금융상품 정보: 네오머니, 웰시아닷컴, 국민은행, 주택은행

#### ○ 학자금 대출 정보: 네오머니, 주택은행, 하나은행

-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자사상품에 국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하나은행은 타금융기관 상품들까지 포함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대출금리 등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모든 금융전문사이트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같이 제시하고 있음.

### (2) 계산기

#### ○ 목돈마련과 목돈증식을 위한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는 예적금계산기, 재산세, 부동산

2) 본 연구에서는 생애재무설계 관점에서 자녀교육비 설계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세정 등에 따르면 선별적으로 분석한 11개 시중은행 사이트 중에서 4개 은행, 8개 금융전문사이트 중에서 3개 사이트만이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이 된 증권이나 보험사이트 중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 및 등록세, 상속세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계산기, 대출상환방법에 따른 상환액 계산, 대출관련 비용 등을 계산해주는 대출계산기, 급여생활자를 위한 연말정산계산, 연금지급액계산기, 이자계산기, 신용카드계산기, 환율계산기, 주식계산기, 채권계산기, 펀드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적금 계산기, 대출계산기 등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최적 상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3) 생애재무설계/시뮬레이션

#### ○ 업체들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서비스임.

- 네오머니: ‘교육자금 필요액 산정→대학교육을 위한 저축필요액 산정→행동계획 설정’의 단계적 서비스
- 웰시아닷컴: ‘니즈분석→근로소득 분석→자산분석→유형별 조언’의 단계적 서비스
- 크래디앙: ‘진단’과 ‘설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진단’부분에서는 투자 성향 및 부채, 보험, 저축 등에 대한 가계재무 건전도를 평가해주고, ‘설계’부분에서는 평생동안의 재무설계 시뮬레이션을 제시함. 그러나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고 까다로우며, 결과의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주택은행: ‘라이프사이클 컨설팅’ 코너에서 생애주기 현금흐름예시 등의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교육자금설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함. ‘테마별 자금설계’ 코너에서 자녀교육비설계를 위한 ‘자금설계 → 저축찾기 → 대출찾기’ 등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양뿐이고, 세 단계가 연계성이 없을 뿐더러 대학교육 자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고 대학등록금으로도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는 등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짐.
- 하나은행: 비상금,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대출상환, 주택구입비 등의 평생필요 자금과, 평생수입금액에 대비한 과부족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생활과 금융’ 코너에서 생애주기를 ‘학생기 - 나홀로준비시대 - 신입샐러리맨 - 신혼기 - 가족 형성기 - 정년퇴직기 - 실버노후기’로 구분하여 학생기에 ‘학자금 내 손으로 마련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중년기 시기를 생애주기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국민은행: ‘학생기 - 미혼기 - 가족형성기 - 장년기 - 노후생활기’의 생애주기 단계를 제시하고 학생기와 장년기의 과업으로서 교육자금마련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없음.
- 한빛은행: 재테크진단과 포트폴리오 및 미래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비마련을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표 9> 인터넷 자녀교육비관련 재무설계서비스의 현황

유형	업체명	정보제공	계산기	생애재무설계/시뮬레이션	기타 서비스	이용자격	이용료	특징
금융 전문 사이트	네오머니 (www.neomoney.co.kr)	자녀교육 금융상품 학자금대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대출, 세금 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별 자금설계 : 기본입력 사항→현재교육자금준비현황→향후목표교육과정→시뮬레이션 결과보기 (연령별 예상교육비, 과부족예상액, 교육비 상세내용 등)</li> <li>• Financial Tools : 대학교육비 필요액, 저축계획 시뮬레이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상담</li> <li>• 유료전문 서비스</li> </ul>	대부분 비회원 이용 가능	일부 유료 (39,000~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통계에 근거, 자금필요액을 소비자가 선택</li> <li>• 대학교육자금마련 별도시뮬레이션</li> </ul>
	웰시아닷컴 (www.wealthia.com)	자녀교육목적 금융상품	예적금, 저립금 액, 이자 계산기	라이프플랜마법사 - 40대 평생 자금설계 : 니즈분석→근로소득분석→자산분석→시뮬레이션 결과 및 유형별조언 (필요자금과 준비자금 누계추이, 맞춤 포트폴리오 소개)	전문가상담	회원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자금, 주택추가자금 같이 고려</li> <li>• 최근 객관적 통계에 근거</li> </ul>
	크레디앙 (www.credian.com)	금융상품 (일반)	예적금, 연금지급액, 세금, 대출 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 투자성향진단, 가계재무 전전도 평가(부채, 보험, 저축)</li> <li>• 설계 : 평생 재무설계 시뮬레이션</li> </ul>	전문가상담	회원 (기본정 보-비회원)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 및 시뮬레이션 산출 근거 제시부족</li> <li>• 교육자금마련 별도고려 없음</li> </ul>
은행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m)	금융상품 (자사)	예적금, 이자율, 대출, 부동산, 자동차, 보험료 등 각종 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기 : 학자금 내손으로 마련하기, 장년기 : 자녀교육비 마련→재무설계 단계 설명, 자사 금융상품소개</li> <li>• 생애재무설계 시뮬레이션 가능 없음</li> <li>• 개인자산관리(PFM) : 계좌통합관리, 가계부</li> </ul>	전문가상담 가계부(인터넷뱅킹)	회원, 인터넷 뱅킹가입자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금 시뮬레이션 없음</li> <li>• 자사금융상품 정보제공</li> </ul>
	주택은행 (www.hncworld.com)	금융상품 (자사) 학자금대출 (자사)	예적금,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환율계산기, 급여생활자를 위한 계산기(연말정산, 퇴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별 자금설계-자녀교육: 자금설계 시뮬레이션→저축 찾기→대출찾기 (자사금융상품 소개)</li> <li>• 라이프컨설팅: 생애주기 현금흐름도</li> <li>• 포트폴리오관리: 자산통합관리, 포트폴리오관리</li> </ul>	전문가상담 가계부	회원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금 시뮬레이션 기준이 오래되고, 사교육비 고려 안함</li> <li>• 자금설계단계의 연계성 부족</li> <li>• 자사금융상품 소개에 그침</li> </ul>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www.hanaib.com)	금융상품 (자사) 학자금대출 (타사 포함)	예적금, 이자, 외환, 신용카드, 대출 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과 금융-학생기: 학자금 내손으로 마련하기 (학자금 대출상품 소개)</li> <li>• 평생자금설계 (비상금,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대출상환, 주택구입비) - 평생필요 자금과 수입금액의 비교</li> </ul>	전문가상담 가계부(인터넷뱅킹)	인터넷 뱅킹가입자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 정보 타금융기관 상품 포함, 상환방법, 대출금리 상세비교</li> <li>• 중년기 교육비마련 고려안함</li> </ul>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금융상품 (자사)	예적금, 연금지급액, 세금, 대출 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테크진단</li> <li>• 포트폴리오 미래설계</li> </ul>	전문가상담	인터넷 뱅킹가입자	무료	대부분 서비스가 인터넷뱅킹가입자에 한해 제공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움

#### (4) 기타 서비스

-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회원을 대상으로 계좌통합관리와 가계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자산관리(PFM) 프로그램
- 고객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실시간 진단, 투자성향 분석, 최상의 포트폴리오 설계 및 추천, 은퇴후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설계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은행 개인자산관리 프로그램
- 네오머니가 제공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인재무설계, 재무진단 클리닉, 비공개 투자자문 등의 유료서비스(3만9천원~20만원 정도)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첫째,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업체가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회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 조차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물론 소비자가 입력한 소득, 자산 등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계좌 통합관리나 가계부,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들은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각종 계산기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활용은 비회원이나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임.
- 둘째, 보다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임. 교육비 자료의 최신성,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분석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또 필요자금 시뮬레이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셋째, 이용하기 쉬워야 함. 어떤 사이트는 소비자가 입력해야 하는 자료가 간단하고 입력이 용이한 반면, 어떤 사이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소비자가 입력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도록 만듬. 이런 점에서 네오머니나 웰시아닷컴처럼 평균치를 제시하고, 그것의 몇 %정도를 달성할 계획인지를 입력하도록 한 아이디어는 매우 성공적인 것임.

- 넷째, 생애재무설계 이론의 적용이 필요함. 분석대상이 된 모든 사이트에서 생애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생애주기단계도 각 사이트마다 다르고, 실제로 재무설계시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웰시아닷컴은 이런 점에서 합리적인 단계를 따르고 또 자녀교육비 설계시에 결혼자금, 주택추가마련계획 등을 같이 고려한 점에서 성공적이라 보여짐. 즉, 교육자금 마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을 함께 고려한 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인터넷 재무설계사이트를 평가하고 그 활용법을 제시하며,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가계재무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IV. 맷음말

- 연구방향
  - 소비자행동 연구: 온라인 교육 및 재무설계서비스 시장에서 목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합한 컨텐츠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함.  
예 : 부모와 자녀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기피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강의방식을 선호하며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자녀교육비를 현재 생활비, 저축, 대출, 기타 방법들 중 어떤 비중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금리, 조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법의 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미리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언제부터 마련하기 시작하며 그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학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의 상충관계는 어떠한가 등
  - 정책연구: 소비자복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피해구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적절하며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가, 교육비 공제 등과 같은 조세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방안들의 수혜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등의 제도 및 정책관련 연구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정보 사이트 구축 등

- 디지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의 정보활용능력과 재무설계에 관한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 필요.
- 이에 다양하고 적절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 시행 요구됨.
- 자녀교육 및 자녀교육비 설계에 관한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며, 그 이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소비자중심적 온라인 사이트의 구축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 노력 요구됨.

## 참고문헌

- 교육부 (1998). 교육비 지출현황.
- 김기옥 · 김난도 · 이승신 (2001). 소비자정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기옥 · 서병숙 · 이연숙 · 계선자 · 박미석 · 주인숙 · 이미선 · 한정화 (1998). “경제난과 가정의 건전소비전략,”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심포지엄 발표집(pp. 32-67).
- 박인우 (2001).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 양세정 · 성영애 · 손상희 · 윤정혜 · 이희숙 · 최현자 (2001). “소비자재무설계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산업 유형별 현황분석,” 소비문화연구, 4(2).
- 전인식 (2001). 사이버 교육시장.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은행 (1995). 도시가계 저축시장 조사.
- 경향신문, 2001. 9. 7, 23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용돈마련 수단’ 전략, 이자싸고 졸업후에나 상환.
- 동아일보, 2001. 3. 19, 25면, 교육/ 초등생 싸게 맞춤 학습 ‘온라인 과외’ 뜯다.
- 동아일보, 2001. 9. 7, 47면, 전문교육사이트 인기...수강료 학원보다 저렴.
- 중앙일보, 2000. 6. 1, 25면, 인터넷 과외, 아직은 취약점 많아.
- 한국경제, 2001, 7. 24, 2면, 학자금 대출 꼼꼼히 따져 보세요.
- hackersnews, 2001. 6. 14, 인터넷 교육이용료 1만~3만원이 적당.  
[www.hackersnews.org/data/2001/06/0614\\_52.html](http://www.hackersnews.org/data/2001/06/0614_52.html).
- sobinet.cpb.or.kr, 2001, 8. 29. 컴퓨터통신 교육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소비자주의 필요.
- www.cpb.or.kr, 소비자경보 제16호. 컴퓨터 통신교육 소비자피해 급증.
- www.ilyosisa.co.kr, 2001. 3. 19, 수령에 빠진 교육 4.
- Abdel-Ghany, M. & Sharpe, D. L. (1997).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90-112.
- Brown, A. & Deaton, A (1972). "Surveys on Applied Economics: Models of

- Consumer Behavior," *Economic Journal*, 82, 1145-1236.
- Davis, C. G., Moussie, M., Dinning, J. S., Christakis, G. J. (1983).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ood Expenditure Patterns Among Racially Different Low-Income Households," *We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 183-196.
- Dolan, E. G. (1986). *Economics* (4th Edition), New York: The Dryden Press.
- Hanna, S. & Chen, P. (1996). "Efficient Portfolios For Saving For Colle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5-122.
- Lee, Seonglim (1998). *Parental Strategies for Financing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ichael, R. T. & Becker, G. S. (1973). "On the New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5: 378-396.
- Milbrath, L. W. (1990). A Brief-Pungent Comparison: Modern Unsustainable Society and a Society Designed to be Sustainable, *Proceedings of Human Ecology: Strategies for the Future*, Michigan State University, April 20-22.